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생명살림이
곧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14·15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3월 29일) · 주간

제939호 2013년 5월 8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증일아함경〉

체험이 없다면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이.

불교, 금석문 조사 새 장 연다

조계종 중앙불교博, 금석문 전국 일제 조사

금속과 돌에 새긴 명문을 통칭하는 금석문(金石文)은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편린으로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불교계가 전국 산재한 금석문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은 4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청 학술용역사업을 수주받아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5년 간 매년 2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이번 조사 사업은 소실 위험이 있는 금석문의 원형 탁본 자료를 채탁해 명문을 영구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국 산

문화재청 용역 사업 수주
15년 진행 장기 프로젝트
올해는 기초 목록화 작업
추후 탁본 통한 보존 추진

재된 금석문에 대한 기초 목록화 조사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석문 자료를 비교 · 정리해 탁본 대상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사료의 중요도와 인멸 가능성, 보존 상태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되지 않은 중요 금석문들을 발굴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사업은 사찰이나 사지뿐만 아니라 모든 금석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탁본 사업이후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사업에 해당된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은 책임연구원과 실무진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전국 50여 곳의 현장조사를 통해 현 금석문 유물의 보존 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사업에 대해 불교중앙박물관장 원학 스님은 "전국에 산재한 금석문 자료를 집대성해 탁본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훼손돼 가는 금석문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 "이번 기초 목록화 작업으로 금석문 사료의 보존등급을 만들어 연차별 현장 조사 및 탁본 조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조선시대 불교의 금석문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됐다."며 "탁본 사업을 통해 금석문을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 물려주겠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날마다 좋은날은 4월 28일 서울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알림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캠페인 기부 모금함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서 기부 시연하고 있는 모습.

'행복 바람' 행복 바라미 시작 알리다

날마다 좋은날, 28일 선포식… 카드 기부 홍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 정신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28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 특설공간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알림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기부 문화 활성화의 새 장을 열길 기원했다.

스님은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몸짓과 발걸음부터 시작된다"며 "당장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 바라미' 캠페인 취지를 격려했다.

이기흥 (사)날마다 좋은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자를 떠나 모두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캠페인을 통해 희망과 행복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 바라미' 캠페인은 이번 알림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2일까지 전국 16개 시, 도 108개소에서 모금함이 설치돼 사회공헌기금을 모연한다. 또한 108개 모금함에는 카드단말기가 내장돼 카드 기부 문화의 확산과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한 기부는 1회 3000원이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다음주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집호(제940호, 5월 15일자)는 연등축제 보도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재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후원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본지와 포교원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 불서를 지정 기탁했습니다. 또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등 일선 사찰과 단체에서도 십시일반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선혜 스님
법륜왕사 주지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국제 불교인들 한반도 평화 촉구

개성 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제 불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 등 11개국 불교인과 단체들은 4월 3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불교인들의 호소'라는 제하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은 60년 전 남북 간의 전쟁으로 5백만 명이 희생되고 온 국토가 파괴됐다"며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은 분단국에서 다시 전쟁의 참극이 재현된다면 그것은 남북한뿐만 아닌 온 세계인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제 불교인들은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비롯해 북한 군사력 증강과 핵개발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미국 등 주변국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또한 "남과 북은 적이 아니다. 전쟁이야말로 남과 북, 나아가 지구촌 모두의 진정한 적"이라며 "폭력과 유혈의 비극을 가져올 전쟁위험을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잘 헤쳐가기를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신중일 기자

대행선사 1주기 추모다례재

5월 10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서산정서 부도탑 제막식

스님 일상 담은 사진전도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사진〉의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이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된다.

다례재는 종사영반(宗師靈飯), 헌다, 헌향, 추모 편지글 낭독, 추모곡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부도탑 조성 관련 내용 영상 상영 및 법문 상영이 이어진다.

이후 지난 해 5월 26일 대행 스님의 다비식을 치렀던 서산정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된다. 제막식은 삼귀의, 제막의식, 부도탑 제막, 헌화, 선법가 공양,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된다.

한마음선원은 "1주기 추모재 행사는 안으로는 대행스님 가르침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실천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밖으로는 한마음의 광대무변한 가르침과 스님의 행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승단과 신도회가 동참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주기 행사의 핵심은 부도탑 제막식이다. 부도탑 정식 명칭은 '묘공당 대행선사 탑'이며 부제는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이다.

한마음선원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행장을 상징하되, 탑 자체가 형상만이 아닌 무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치고 마음을 모아 탑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B1면

한편 한마음선원은 추모행사에 맞춰 5월 15일까지 서산정에서 사진전도 개최한다.

마지막 여생을 서산정에서 보낸 대행 스님의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선원은 5월 15일 안양본원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 사시 예불 후 서산정 부도탑을 참배한다.

한마음선원은 "매년 스승의 날 본원과 전국 지원 승단과 재가신도들이 대행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던 뜻을 이어, 승속 제자들이 개개인의 정성을 담은 꽃을 부도탑 앞에 헌화하고 선법가 공양을 올리면서 스승님의 깊고 큰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939호 INDEX

종합 A2·3
케냐 만해초등학교 기공식
성철 스님 친필 유시 진품 회수
첫 염불원인 봉선사염불원 개원
조계종 교구종회 재가자 참여 제안
틱낫한 스님 방한

시방세계 A5
양주 회암사 삼대회상 문화제



학술 · 문화재 A8
불문연 전국사지 발굴 조사

대행 선사 1주기 추모 특집 B1~4

선물하기 좋은 책 1위!

"아름다운 마음보시, 책으로 나누세요."

최단 기간 200만 부 베스트셀러 등극! (비소설 분야)

"사랑하는 이의 소중한 인생에 선물해 주세요."

용기를 주고 싶을 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 200만 독자의 선택!

200만 부 돌파 기념 1+1 증정 이벤트!

지금 구매하시는 분께 혜민 스님의 '친필 메시지 그림 카드'를 드립니다.(1세트 3장, 한정수량)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이영철 그림 | 값 14,000원

정목 스님이 마음으로 추천하는 책!

"따뜻한 체온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적셔놓는 이 책은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구의 손길 같습니다." –정목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힐링이 있는 북콘서트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 스님이 읽어주는 《나의 치유는 너다》

일시 : 2013년 5월 22일(수) 저녁 7시 40분~9시 40분
장소 : 목동 KT 체임버홀
문의 : 031-960-4845~6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나의 치유는 너다

김재진 지음 | 값 14,000원

